



환율 하락시 환테크 전략

환전은 늦추고 금 투자에 관심을...



한상언
 신한은행 프라이빗뱅킹 재테크팀장
 (hans03@shinhan.com)

연초 부터 외환시장이 긴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해들어 세자릿수로 급락한 환율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월 초만 하더라도 1030원대에서 움직였었지만 해가 바뀌면서 세자릿수로 떨어지더니 1월 하순 현재 970원대까지 밀린 상태다. 이렇듯 단기간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지난해 달러화 강세를 이끌었던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은 조만간 마감되면서 이후 달러화 약세 요인인 미국의 쌍둥이 적자문제와 중국의 위안화 절상가능성이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무역수지 호조에 국내 경기의 회복 가능성 등으로 원화 강세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환율하락은 시기가 당겨졌을 뿐 결국 올 것이 왔다는 분석이고 이후도 상승보다는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재테크에 있어서 환율 하락에 대비하는 전략은 크게 환전 시기를 늦추는 수동적인 대응과 환율 하락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는 분야를 공략하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같은 금액의 원화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외화 금액이 그만큼 늘어남을 의미한다. 그래서 앞으로 환율이 더 떨어진다 하면 최대한 환전시기를 늦추으로써 더 많은 외화금액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 때문에 환율하락기엔 해외 송금이나 해외여행을 위한 환전 등은 가급적 시기를 늦추는 것이 효과적이며, 반대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는 더 떨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찬가지로 외화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환차

익을 겨냥한 외화예금 등에 가입한 경우라면 이를 추가 환차손이 발생하기 전에 환전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환율하락의 반대편을 노리는 것은 환율하락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다.

환율하락은 환차손을 의미하지만 그와 상반된 분야에 대해서는 가치 상승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금 관련 투자와 달러화 약세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업에 대한 주식투자 등을 들 수 있다. 금에 대한 투자는 달러화 약세 시 국제 금 시세는 강세를 나타낸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골드뱅크를 통해 금에 직접 투자하거나 금 관련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 할 수 있다. 주식투자의 경우엔 원재료의 수입비중이 높은





업종과 달러 부채가 많은 항공주나 철강주, 에너지관련 업종이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의 수혜를 입는 쪽으로 분류된다.

이들 기업은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수입단가가 낮아져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세지게 되고,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의 경우는 원화로 환산한 부채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도 그렇지만 기업의 주가는 환율 요인 외에 여러 변수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환율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펀드 투자 시엔 선물환 계약으로 환위험 축소를...

한편, 환율이 하락하면서 새삼 해외펀드의 환위험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펀드의 환위험 관리가 중요한 것은 해외펀드는 원화가 아닌 외화로 바꿔 투자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달러화로 투자하는 해외펀드의 경우 투자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올라 수익이 발생했다더라도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종전보다 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면 환율 부분에서 환차

손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그 만큼 원화 기준 수익률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 때문에 해외펀드 가입 시엔 선물환 계약을 통해 선물환 매도를 취해 두는 것이 환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미리 매도하는 가격을 정해둬으로써 이후 환율변동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물환 계약을 체결할 때도 몇가지 사항을 감안해야 한다. 먼저 선물환 계약 기간은 대개 1개월부터 1년 기간으로 약정된다. 투자기간이 1년 이내라면 자신의 투자기간에 맞춰 선물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투자기간이 1년을 넘게 되면 선물환 계약도 다시 갱신해야 하는 것이다. 또, 선물환 계약은 원금 부분에 대해서만 체결된다. 이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수익이 발생할 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금에 대해서만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향후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따라서 환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선물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초 투자원금이 아닌 재계약 시점의 평가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밖에 해외펀드에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식펀드처럼 소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하는 경우엔 상대적으로 환위험에 노출되기가 쉽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목돈 투자 시는 투자금액에 맞춰 한번만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면 되지만 적립식투자는 투자할 때마다 매번 선물환계약을 따로 체결해야 하고 투자금액도 크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투자시점이 분산돼 환율도 평준화 되는 효과를 얻게 되지만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데 따른 환위험 부담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는 펀드 자체의 성과 뿐만 아니라 환율전망도 함께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